

+ 우리들의 정성 [10월 3일(월) ~ 10월 9일(주일)]

연중 제 28주일헌금	2,983,200원	특별헌금	786,0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627명	
교 무 금 3,830,000원	강형숙 유스띠나	고길만 미 카 엘	김상길	김승태		
	김영희 아 네 스	김 용 베 드 로	김윤상 바 오 로	김일수 베 드 로		
	김진태 대건안드레아	김진홍	김창호 마 리 노	문봉숙 보 나		
	민승기 요 한	박영조 미 카 엘	서영재 모 니 카	송경일 요 셉		
	송미선 안 젤 라	양현정 마 리 아	오은영 마리아막달레나	오인숙 요 안 나		
	유정일 요 셉	유종석 안토니오	윤석기 베 드 로	이미아 레 지 나		
	이병녀 요셉띠나	이수경 마 리 아	이순애 마 리 아	이승호 아브라함		
	이영순 마 리 아	이유미 율리안나	이정란 루 치 아	이학구 빈첸시오		
	이행민 시 몬	이호재 미 카 엘	임경자 데 레 사	임희근 안드레아		
	정승은 베로니카	조성태 라우렌시오	주여은 베르디아	최영만		
	최영희 카타리나	최윤희 엘리사벳	최해정 실 비 아	홍경순 마 리 아		
	홍화자 젤뚜르다					
	감 사 헌 금	김영준 안드레아	100,000	김혜영 보 나	50,000	이동환 스테파노
원종숙 젤뚜르다		100,000	배종영 마 태 오			
토지·건축 헌 금	조성태 라우렌시오	40,000	주여은 베르디아	200,000	윤석기 베 드 로	50,000
사회복지후원금	김진홍	1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 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64,113,700원	290,000원	26,810,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 I 미사전례》)

◆ 신자들이 더 이상 옛날처럼 전례에 쓸 빵과 포도주를 집에서 가져오지는 않을지라도(「미사 경본 총지침」, 73항 참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가져와서 성찬 준비를 할 수 있나요?

○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누룩이나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는 순수한 밀로 만든 제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역시 아무것도 섞지 않는 순수한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미사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례 때 사용하는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교회법 제 924조)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성체 축성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 제대와 예물 준비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은 예물 봉헌의 역사적 전통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시대 누구나 먹고 마시던 빵과 포도주로 성체성사를 세우셨기에 교회 공동체는 빵과 포도주를 성체성사를 이를 음식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던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 미사 예물로 바쳤습니다. 세월이 지나 영성체를 하는 신자 수가 많아지자 빵과 포도주 대신 지금과 같은 제병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